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사의 내전(內戰)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5·18 언설을 중심으로*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융합정책연구소 연구교수***

1987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기표를 공식 부여받은 5·18은 극우보수 집단에 의해 북한의 지령이나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들에 의한 내란과 폭동으로 재서술되고 있다. 내란과 반란, 폭동의 주범들이 보상을 받고 종북좌파가 득세하는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극우보수 집단의 서사는 5·18을 향한 극단적 적대감을 고취시킨다. 정당, 대학,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극우보수 인사들이 5·18의 역사와 기억을 자신들의 서사 속에서 재정립하려는 담화 정치를 수행한다. ‘일베’에서 ‘젊은 우파’ 집단으로 평가받는 이들 또한 5·18에 대한 극우보수 집단의 언설들을 지지하고 확산시킨다. ‘일베’는 극우보수 인사들의 언설과 5·18 관련 정보들의 재구성과 재생산의 주요한 통로다. ‘일베’는 5·18에 대한 폄하와 조롱, 적대와 혐오의 언설들이 펼쳐지는 주된 무대 중 하나다. 이 논문에서는 ‘일베’에서 펼쳐지는 언설과 이야기들이 5·18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언설들이 의존하고 있는 정보 자원들은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베’와 극우보수 집단에 의한 5·18 관련 언설들이 공명(共鳴)하면서 만들어 내는 역사의 내전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KEYWORDS 일간베스트저장소, 5·18, 역사의 내전화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645).

** skk21jsy@naver.com

*** yjfeel@seoultech.ac.kr 교신저자

1. 연구배경 및 목적

5·18의 시·공간은 누구에게는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으로 불리고 누구에게는 광주 사태, 광주폭동, 광주반란으로 불린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화된 역사적 명명은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는 불안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일부 극우보수 인사들과 보수 언론매체들은 '87년 체제'가 만든 '역사 왜곡'을 벗어나 5·18을 다시 '폭동'과 '반란', '내란'으로 재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여전히 그들에게 5·18은 혐오와 증오, 저주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5·18의 역사적 무대였던 광주와 전라도 또한 극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 극우보수 집단은 자신들이 정치적 저항이나 위기에 직면할 때 혹은 정치적 해계모니를 재생산해야 할 때마다 광주, 전라도, 5·18, 그리고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집단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자극해 왔다. 1980년 이후 35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자신들의 '선출된 권력'을 잠시 양도한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동안에도 노골적이거나 때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태로 광주, 전라도 그리고 5·18에 대한 공격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5·18, 광주 그리고 전라도를 둘러싼 폄하와 혐오, 적대와 증오의 선동정치학은 한국 극우보수 정치 동학의 핵심에 가닿을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5·18을 둘러싼 선동적 언설 정치는 최근 연령, 성별, 지역, 학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 수 없으나 한국 사회에서 개혁, 진보, 민주 세력 등으로 불리는 집단이나 이주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무차별적이고 극단적인 폄하와 혐오, 증오와 적대의 언설들이 뒤엉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는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며 통합된 정치적 행동들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개혁, 진보, 민주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일베'는 광주와 전라도, 5·18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당이나 집단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수행한다. 이들에 의해 5·18 당시 희생당한 시민들의 관은 '홍어택배'가 되고, 전남도청은 '북한군의 점령지' 그리고 저항했던 시민들은 북한군의 지령을 받아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 실행자'들이 된다.

'일베'의 문제시되는 확장 속에서 이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들도 뒤따르고 있다. 그동안 '일베'가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는 5·18과 광주/전라도에 대한 비하, 여성 혐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적대감, 이주 노동자나 인종적 소수자들에게 대한 혐오나 조롱,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 및 추모집단에 대한 패륜적 언행들에 대해 '좌절한 젊은

세대의 가학적 놀이, '차별 추구적 집단행위', '일탈', '분노 사회의 병리적 현상', '집단적 극단화', '기성세대의 금기를 깨는 것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반사회적 집단', '비판과 역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집단' 등의 분석적 진단들이 제시되었다(조희연, 2013).

그러나 이 글은 '일베'에 대한 일탈과 집단적 가학적, 반사회성을 강조하는 도덕론이나 젊은 세대의 좌절과 이에 기반한 분노를 강조하는 세대론, 비판과 역공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심리론보다는 한국의 극우보수 집단 내부의 정치적 동학과 '일베' 현상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한국의 극우보수 집단의 다양한 분파와 이들의 헤게모니적 경쟁에서 파생하는 선동 정치와 언설 투쟁의 한 연결 고리로서 '일베'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접근법을 택한 이유는 '일베' 현상이 본격화된 시기가 이명박정부의 집권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박근혜정부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며, 이 시기에 뉴라이트 세력의 부상, 역사 교과서 파동, 구 보수 정권에 대한 옹호와 구 개혁 정권에 대한 부정, 친일 세력에 대한 정당화, 독재 정권에 대한 정당화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 냉전적 반공주의의 부활과 보수 정당의 옹호, 종북 논란 등 일련의 정치적 파동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베' 게시글을 보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언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발언, 신문, 방송(지상파, 종편 채널 등), SNS, 기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매개로 소개된 뉴스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베'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집요하게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5·18, 그리고 5·18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인사나 정치 집단에 대한 적대적 공격들의 이면에 놓인 한국 극우보수 집단의 선동정치의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베' 사이트에 게시된 5·18 관련 글들을 모아 글의 게시자들이 5·18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으며, 의미화의 과정에 연결된 정보 소스들의 상호연결성, '일베' 외부의 언설이나 언설 생산자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5·18을 둘러싼 극우보수 집단의 언설정치의 이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극우보수 정치집단의 분화와 역사 분쟁화

다음은 2014년 9월 12일 <뉴데일리>에 실린 칼럼의 일부 내용이다.

내전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 영역 내에서의 합법정부와 반란단체 또는 혁명·독립의 운동단체(때로는 반란단체) 간에 국가의 지배권력 또는 분리 독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무력분쟁을 가리킨다. 문득 이제 본격적인 내전이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 물론 아직 무력분쟁은 아니지 라고 자위도 해보지만 무력보다 더한 것도 무기로 하여 싸워 오고 있지 않은가.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라는 말은 이미 쓰레기통에서 냄새만을 풍기고 있을 뿐이다. 단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자유 대한민국 및 그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각계각층에 침투한 반(反) 대한민국 세력, 즉 북한 세습독재 정권의 지원을 받아 그를 추종하고 또는 그에 굴복하여 대한민국 존립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를 보호·옹원하는 정치집단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 중간에 소위 ‘중립’을 표방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엄청 많지만, 그들은 결국 반(反) 대한민국 세력의 역량 차용 대상, 통일전선의 먹잇감이기 십상일 뿐이다. (중략)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은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9년 전 이즈음의 묵은 신문들을 들춰보면, 15일 인천상륙작전이 55주년을 맞은 가운데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위협수위를 넘고 있다. (중략) 현재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 중에 이 일(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된 일)들을 기억·기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천추의 한을 품고 맥아더를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을 그린친 원흉’으로 기억하는 세력이 있다. (중략) 우리도 천추의 한을 품어야 한다. 자유통일을 눈앞에서 날려 버린 1951년의 한을 가슴에 응골차게 품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현재의 내전에서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게임이라도 되지 않겠는가(이덕기, 2014. 9. 12).

극우보수 집단에게 지금 한국 사회는 ‘내전’ 상태에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북한을 흡수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지 않으며, 북한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맞서 펼치는 내전의 상태다. 또 그동안의 보수 냉전적 역사 서술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맞서 진행되어야 하는 내전이다. 극우보수 집단은 이같이 내전을 선언하는 데 익숙하다. 친북/중북 세력 척결, 무상복지론자들과의 전쟁,¹⁾ 백년전쟁 세력에 대한 전쟁²⁾ 등의 선언들이 ‘내전’을 구성하는 대립 구도로 작용한다. “좌파가 학계와 교육, 언론, 예술, 출판계, 최근 연예계까지 많이 들어가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좌파가 한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 와서 의식도 않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좌파 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 등과 같은 공격들도 ‘내전’의 확산을 이끈다.³⁾

극우보수 집단의 ‘내전’ 선언과 그들이 진보·좌파라고 규정하는 집단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이념 공세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시기와 병합하여 심화되고 있다. 극우보수 집단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의 개혁·진보 진영의 해계모니를 해체하고 보수 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이념과 언설 공세에 능숙하며 이의 효과 또한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알고 있다. 이 같은 극우보수 집단의 이념과 언설 공세는 이명박정부에서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렸던 집단이 주도했다.

‘뉴라이트’의 출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임혁백(2004)에 따르면, 20세기 후반기에 한국의 보수는 이념적으로는 냉전 체제를 지탱해 준 반공주의, 정치적으로는 호남 배제의 지역패권주의, 경제적으로는 개발독재모델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성장 우선주의에 의거하여 한국의 주류를 형성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패러다임적 대변환 과정에서 해계모니를 조금씩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의 보수는 서구와 달리 반공주의라는 부정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면서 자생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국제적 냉전 체제의 해체와 함께 한반도에서 이념적 추동력을 상실했고, 보수는 심각한 정체성 문제에 직면했다. 물론 국제적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냉전 체제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반공을 유효한 이념적 좌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노태우정부가 ‘북방 정책’을 통해 구소련이나 중국과 수교하고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해체를 추구하는 ‘남북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스스로 반공을 해체하는 작업을 벌인 결과 한국 보수의 이념적 지위로서 반공주의는 그 지위가 쇠락하게 되었다. 또 김대중정부 시기에 반공의 가치는 더욱 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

1) 보수정치집단은 복지체계의 확장을 주장하는 집단들에 대해 ‘사회주의적’, ‘종북주의적’ 무상복지론자들이라는 비난을 앞세우며 이들과의 ‘전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2) 2012년 9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이라는 두 편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이승만의 두 얼굴: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 것〉, 〈프레저 보고서: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를 통해 친일 세력과 박정희 신화를 비판했다. 또 이승만의 여성편력이 포함된 내용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유튜브에서 3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대중들의 반응도 작지 않았다.

3)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를 집필하고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공격하며 역사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의 대표적인 발언들이다.

적으로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함으로써 지역주의를 동원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한국 보수의 굳건한 믿음도 약화되었다. 특히 선거에서 지역 분할보다 세대적 균열 요소가 점차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1997년 말의 금융 위기와 IMF 관리 체제 이후 국가 주도의 개발독재모델의 점진적 해체 및 신자유주의 체제의 정착은 한국 보수의 경제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이처럼 한국의 보수는 탈냉전,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의 약화와 세대 균열의 부상, 사회경제적으로는 발전국가 모델의 폐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의해 정체성 위기에 봉착했고, 사회적 담론 형성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국가 권력과 의회 권력을 개혁·진보 진영에 내줌과 동시에 시민사회 내에서도 헤게모니의 우위를 잃게 되었다(임혁백, 2004, 159-162쪽).

뉴라이트 세력의 부상은 이 같은 종합적인 상황의 파생물이다. 약화되어 가는 보수 체제의 헤게모니를 다시 창출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기존 보수 집단의 일부가 ‘발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와 같은 가치를 내걸고 출현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한나라당 내의 박세일 의원과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박세일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어려운 이웃뿐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고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주의, 민주적 평화에 기여하려는 세계주의 지향을 주장했다. 이후 선진화 프로젝트에 호응해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였고,⁴⁾ 김진홍 목사, 손봉호 총장, 서경석 목사 등 중도 성향의 기독교시민단체 리더들이 기독교적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결합하는 뉴라이트 단체를 만들게 된다. 이외에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싱크탱크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도 뉴라이트의 가치를 옹호하며 다양한 조직들을 결성하게 된다(임혁백, 2004, 163-165쪽; 김병곤, 2011, 27-28쪽). 뉴라이트는 전반적으로 한국 현대사의 성취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민주성과 인권 탄압,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유산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은 건설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전통적인 보수 집단과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지는 않는다(김병곤, 29-30쪽).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내는데, 분배와 복

4) 흥미로운 것은 자유주의연대의 주도 인물들이 1980년대 학생운동진영의 PD와 NL 출신들이고 이후 보수로 전향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신지호, 홍진표, 이동호, 허현준, 최홍재 등은 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나 민혁당의 핵심 멤버이거나 전대협과 한총련의 핵심 간부들로 활동했으며 보수로 전향하면서 자유주의연대를 창립하였다.

지, 북한 포용정책, 과거사 청산 등의 정책을 앞세운 노무현정부를 좌파로 규정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명확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것,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과 대량살상 무기의 근원적 해결에 나설 것,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할 것, 분배보다 성장 정책을 우선시 할 것 등의 입장을 내걸고 노무현정부를 포함한 개혁·진보 진영과 대립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뉴라이트의 많은 조직들이 소멸되었고,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의회에 입성하거나 이명박정부에 기용되었다. 하지만 뉴라이트가 주장했던 이념이나 정신을 계승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정부나 의회, 언론계나 학계 등에 포진된 뉴라이트 계열의 핵심 인사들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요구,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 활동, 복지제도의 확장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과거의 보수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전재호, 2014).

뉴라이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가장 강렬하게 펼치는 활동은 ‘교과서’와 ‘역사’ 서술을 보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소위 ‘역사 전쟁’, ‘교과서 전쟁’이라 불리는 정치적 프로젝트에서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구분 자체가 사라진다. 이들은 기존의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반기업적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환경을 싣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하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기존의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공격한다. 특히 이명박정권에서 교육부, 국방부, 통일부의 주도하에 교과서의 ‘좌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개정을 주장하게 된다. 통일부는 4·3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할 것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 등에 관한 비판을 약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통일 정책과 북한에 대한 기술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박정희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줄이고 북한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삭제하는 반면 비판적 서술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정부는 교과서와 역사 논쟁에 직접 개입하는 당사자가 된다. 이명박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이 된 안병만은 근현대 교과서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고 있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결국 교육부 장관이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직권수정 명령을 내려 직접 수정하도록 했다(이신철, 2013).

뉴라이트와 보수 세력은 교과서 수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사 역사 특강’을 실시하거나 교사나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연수를 실시하면서(이신철, 2013), 보수 세력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교육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더 나아가

2011년에는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 언론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역사 교육을 강화할 것과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신철은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합작품인 역사 서술 수정 프로젝트를 통해 ‘식민주의’와 ‘반공국가로의 회귀’라는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교학사의 <한국사>의 경우처럼 “지나친 사실 오류와 무성의한 편집 그리고 내용과 사진의 표절 의혹, 부적절한 사료 제시와 인용, 친일·식민지 미화, 친미·독재 미화, 국가 폭력 은폐와 전쟁 미화, 민주화운동 경시, 역대 정권에 대한 불균형 서술” 등의 문제와 함께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된다.

극우보수 집단의 5·18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진술들 또한 한국의 보수 집단이 벌이고 있는 역사 전쟁과 연결된다. 보수 세력이 스스로 ‘내전’을 벌이고 있다는 글과 말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5·18을 둘러싼 극우보수 집단의 언설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최근의 보수 집단의 분화와 이들의 정치적 프로젝트들을 이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통로를 제공한다.

3. 보수 정치의 강경 우경화와 5·18 그리고 ‘일베’

조희연(2013)은 보수 세력 혹은 보수 블록을 하나의 균일한 집단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보수 블록은 여러 하위 분파들로 구성되며, 또 그 내부에 다양한 균열이 존재하면서 주제에 따라서 어느 세력이 더 주도적인가 하는 점도 다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5·18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주도하는 집단은 극단적인 일부 반북 이념 분파들이 몇 가지 정보 소스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과 시각을 확대하려고 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희연의 생각이다(4쪽). 그러나 조희연의 생각은 다소 관대하다. 5·18은 극단적인 반북적 입장을 가진 소수 이념 분파의 적대적인 공격 대상이기보다는 한국 보수 세력이 가장 부정하고 싶은 역사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음의 글을 보자.

지금 좌파는 해당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문제 교과서로 낙인찍어 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좌파 학자, 언론, 포털,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단순히 역사 교과서나 역사학계나 지식인 사회의 이념 구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념 전선의 현실이고, 이념(가치) 생태계의 문제인 것이다. 물론 정권은 2007년 이래 우파(?)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념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좌파 생태계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반면 우파 생태계는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이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서 우파가 수세에 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략) 반면에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히 느껴진다. 민주당의 경우, 전태일의 여동생을 시작으로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장,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정수장학회 논란의 한 축인 <부산일보> 퇴직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전남사무국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교조 출신 민중시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출신 전 방송위 부위원장 등으로 이어지다가 1989년 밀입북 사건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임수경으로 끝을 맺는다. 하나 하나가 이념투쟁의 최선봉에서 싸워온 투사들이다. (중략) 반면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는 그런 투사가 없다. 보상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중략) 우파 대학생 운동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보좌관이 되어야 한다. 이념의 생산기지인 대학으로도 우파 지식인들을 들여보내야 한다. ‘가진 자’들이 기금을 만들고, 대기업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들이 자리를 만들어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세계관을 심어 주려는 지식인들이 강단에 설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 이념의 생산-전파-현실화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 과정에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파 생태계’다. 우파 생태계의 건설 없이는 지속가능한 우파운동도 자유와 번영의 지속도 불가능하며, 사회통합은 더더욱 힘들 것이다(배진영, 2013).

2014년 홍성기는 ‘자유경제위의 <정책 제안>을 통해 ‘사실 왜곡, 집단광기,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인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다. 그는 “지난 20년간 한국에서는 주로 좌파 진영에 의해서 특히 선거철이 되면 대중의 시각을 선거에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하여 사실 왜곡과 괴담이 쏟아져 나왔다.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0년 천안함 폭침의 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1억 원 피부과 의혹,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흑색선전, 2014년 의료 민영화 괴담, 윤진숙 장관 사진 왜곡, 문창극 전 총리 후보 친일파론 등이 그 일부”라고 주장했다(홍성기, 2014). 홍성기는 사실 검증 없이 왜곡과 선정 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주로 비판하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실 왜곡과 집단 광기의 근원지가 좌파 진영이라고 말한다. 홍성기와 배진영(2013)의 경우처럼 보수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적대적 공격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들이 더욱 강경하고 극단화되고 있으며, 이는 보수 세력의 강경 우경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 교과서 파동을 포함한 역사 전쟁의 전면화,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이 정책들을 떠받치고

있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극단적 거부와 공격, 끊임없이 쏟아지는 중복 물리와 색깔론 공세,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혐오스러운 증오 언설에 이르기까지 보수 세력의 정치 공세는 ‘우파 생태계’의 더욱 견고한 구축을 위한 정치 프로젝트로 보인다.

‘일베’의 부상과 이들의 극단적인 언설들은 보수 집단의 강경 우경화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일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 내는 증오 언설(hate speech)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⁵⁾ 이들은 주로 극우적 이념과 호남 혐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 여성과 이주자 등 외국인 노동자 혐오, 인종차별, 타 종교에 대한 혐오,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초로 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증오언설들을 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또 강정석의 경우처럼, 권위와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조롱,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강한 증오,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987년 6월항쟁 이후 획득한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과 함께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1987년 이전 체제의 정당화와 퇴행의 욕구들을 발견한다(강정석, 2014). 강정석은 ‘일베’가 스스로 적을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서 극우적 주체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베’가 자신의 ‘적’으로 규정한 대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일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한윤형(2013)은 ‘일베’가 올드라이트, 뉴라이트, 네오라이트로 명명될 수 있는 다양한 보수 분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뉴라이트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시위의 거대한 물결과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보수의 위기감에서 탄생했고, 진보 진영의 득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수의 이념을 조직하려 했다. 올드라이트는 광복 이후 좌우 갈등, 6·25 전쟁 전후의 좌익 숙청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해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봉기를 경계하고 이들의 위협을 핏계로 좌익들을 학살한 국가 권력에 대한 자기 동일시를 가지며, 박정희와 산업화에 대한 무한한 긍정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또 네오라이트는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민주화 이후 삶의 질이 향상되기보다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이들의 정서가 중심이 된다. 대다수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5) 증오언설(Hate Speech)은 인종, 성, 종교,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사회적 위치나 직업, 외모 등에 대한 편견이나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위협하거나 선동하는 발언을 말한다. 이러한 성향이나 감정이 폭력 혹은 테러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를 일컬어 ‘증오범죄(Hate Crime)’라고 한다. 증오언설은 “증오의 감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hate’는 단순한 증오감정이 아니다. ‘차별·선동’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소수 민족·인종,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에서 비롯한 증오이다. 차별이란 ‘특정 사회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일방적이고 상시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불공평한 상태’를 말한다. ‘speech’는 구두 언설이나 발화뿐 아니라 그림이나 낙서, 영상표현,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속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징(symbol)을 사용하는 표현과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野間易通, 2013).

경험을 하면서 민주 세력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을 의심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민주 세력에 대한 의심을 확장한다.

‘일베’가 중복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광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며 호남 혐오의 정서를 가진 것은 올드라이트의 영향일 것이고, 이주노동자 혐오나 여성 혐오의 경우 해외 극우파들과 마찬가지로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그들 나름대로 수용하며 형성된 특징이다(한윤형, 2013). 한윤형의 진단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조희연(2013)은 ‘일베’ 현상을 분석하면서 ‘천민적 자본주의’에서 사회경제적 좌절을 겪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분노의 집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기에 있었던 젊은 세대들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자본과 현실권력에 대한 반발로 인한 집단적 가학성과 주변성의 표출, 보수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퇴행적 극단주의를 촉진하는 보수 세력의 영향력 등의 여러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베’를 설명한다.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일베’에서 형성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언설들을 한국 극우보수 집단의 선동 정치적 차원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것에 있다. 특히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은 한윤형(2013)과 조희연(2013)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일베’에 대한 다양한 한국 극우보수 집단의 영향력이다. 그리고 5·18에 대한 ‘일베’의 언설들이 이러한 보수 집단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베’의 5·18 관련 언설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1: ‘일베’의 5·18 관련 언설들은 어떤 의미 연결망으로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 1-2: ‘일베’의 5·18 관련 언설들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일베’의 5·18 관련 언설 형성을 위한 정보 자원과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1: ‘일베’의 5·18 언설 형성을 위한 정보 자원은 어떤 연결망으로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 2-2: ‘일베’의 5·18 언설을 형성하는 정보 자원 연결망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2)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일베(<http://www.ilbe.com>)’다. ‘일베’는 ‘일베’, ‘짤방’, ‘정치’, ‘축구’, ‘인기’, ‘추천’, ‘게임’ 등 7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7개 메뉴는 다시 하위 메뉴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일베’는 ‘일베 일간베스트’, ‘일베 일간베스트(정보)’, ‘일베 일간베스트(인기글)’, ‘일베 일간베스트(정보 인기글)’, ‘개드립’, ‘랜선 역사’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5·18과 한국 극우보수 집단의 정치 언설 그리고 선동정치에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일베’의 7개 메뉴 중 ‘정치’에 주목하였다. ‘정치’ 메뉴는 ‘정치 게시판’과 ‘정치-일간베스트’ 등 두 개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 게시판’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게시글이 ‘정치-일간베스트’로 이동된다. 따라서 ‘정치 게시판’과 ‘정치-일간베스트’에서 5·18에 관해 작성된 게시글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두 게시판에서 “5·18”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제목과 내용에 5·18이 포함된 게시글을 추출했다. 검색일자인 2015년 3월 6일 현재, ‘일베’에서 검색된 최초의 5·18 관련 글은 2014년 7월 31일에 게시된 것이다. 따라서 분석기간은 2014년 7월 3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했다.⁶⁾ 이 기간에 추출된 게시글은 ‘정치게시판’ 551개, ‘정치-일간베스트’ 64개다. 추출된 게시글 전체 내용을 1차 검토하여 5·18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단순 언급된 글 혹은 중복 게재된 글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게시글은 ‘정치게시판’ 300개, ‘정치-일간베스트’ 61개 등 모두 361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방법은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다른 단어들 간의 연결망(network)이 어떤 의미론적 관계(semantic association)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대상 게시글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 개별 단어가 전체 연결망에서 위치한 지점, 단어 간의 연결 상태와 구조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구조적 패턴, 송신자의 의도, 담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각 단어들의

6) ‘일베’의 공지글(2014. 8.5)에 의하면, 게시글과 댓글 수가 많아서 검색서버의 부하가 심해져 사이트 전체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베 게시판’을 제외한 과거 게시글은 2014년 3월부터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검색서버 증설과 튜닝이 되면 과거의 게시글도 검색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색결과 추출된 게시글 전체를 검토한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반복 게시되는 특성이 발견되었고, 5·18에 관한 글들은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게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분석 기간에서 5월은 제외되었지만, 검색 결과 추출된 게시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 빈도와 연결 관계는 특정 의미를 만들어내며 특정 상징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박지영·김태호·박한우, 2013; 박한우 & Leydesdorff, 2004; 정서화·조현석, 2014).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일베’에서 5·18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논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분석대상 게시글 전체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게시글에 포함된 모든 단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전체 단어들은 총 여섯 차례의 정제 작업(cleaning)을 거치면서 관사, 접속사, 접미사 등을 제거하고 명사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의미와 맥락을 지닌 단어는 하나의 대표 단어로 통합하고 일원화하였다. 예를 들어 ‘항쟁’, ‘항거’, ‘투쟁’ 등은 ‘민주화운동’으로 통합하였고, ‘왜곡’, ‘조작’, ‘유언비어’, ‘음해’ 등은 ‘왜곡조작’으로 통합하였다. ‘폭도’, ‘탈취’, ‘폭거’, ‘테러’, ‘습격’ 등은 ‘폭동’이라는 대표 단어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뉴스’, ‘네이버 지식IN’, ‘네이버 지식백과’ 등은 ‘네이버’로 일원화하였다. 이렇게 여섯 차례의 정제작업과 일원화 과정을 거친 후, 단어들의 출현빈도 순위와 함께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일부 단어를 추가하여 의미연결망분석에 활용할 대표 단어를 추출하였다. 둘째, 한국어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활용하여 대표 단어들의 출현 빈도와 동시 출현 빈도에 기초하여 행렬 데이터를 도출했다.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소프트웨어인 NodeXL를 활용하여 각 단어들 간의 의미연결망을 시각화했다. 마지막으로, NodeXL에서 제공하는 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의미연결망을 구성하는 하위 군집을 도출했다. 이 군집 분석 알고리즘(Clauset, Newman & Moore, 2004)은 각 단어별 연결 정도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위 군집을 분류하는 기법이다.

둘째, 분석방법은 각각의 게시글들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의미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한 담론 분석 방법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가 구조주의나 기호학적 담론 분석, 사회언어학적 담론 분석과 같은 특정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성격의 연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분석 대상 게시글들을 모두 읽고 5·18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규정하는지, 또 이에 대해 게시자가 어떤 해석과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글들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5. 분석결과

1) '일베' 내 5·18 언설의 의미연결망과 특성

(1) 5·18 언설의 의미연결망

'일베'에서 5·18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언설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출현 빈도순으로 50개의 대표 단어를 추출했다. '5·18'(894회), '광주'(557회), '시민'(512회), '북한'(460회), '전라도'(391회), '무기'(305회), '반대'(298회), '폭동'(245회), '김대중'(206회), '군'(178회), '민주화운동'(167회), '역사'(166회), '좌빨'(156회), '일베'(153회), '세월호'(143회), '사실(fact)'(133회), '홍어'(134회), '당시'(133회), '진실'(133회), '지지'(117회), '전두환'(115회), '사태'(111회), '지만원'(111회) 등의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았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 사용한 50개의 대표 단어는 동일한 대상이나 유사한 의미를 지칭하는 개별 단어를 일원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경우, '전남', '절라', '절라디언' 등, '북한'은 '북', '북측', '북한군', '북한특수부대', '북괴' 등, '반대'는 '안티', '비판', '비난', '비방', '분개', '부인', '비하', '거부' 등의 개별 단어를 일원화한 대표 단어다. 각각의 개별 단어들이 '일베'의 특성이나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단어로 일원화하여 빈도수에 반영한 이유는, 모든 단어를 개별 단어로 처리했을 때 해당 단어들이 주요 단어 순위에서 누락되어 중요성이 절감될 수 있으며, 전체 의미 연결망 구조가 파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원화하여 추출한 50개의 대표 단어들이 각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어떤 맥락과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시각화한 것이 <그림1>의 의미연결망 지도다. 동근 노드는 각각의 단어를 표시한 것이며, 노드의 크기는 해당 단어의 출현빈도를 나타낸다. 노드들 사이의 선은 단어들 간의 연결을 의미하며 선의 굵기는 게시글에서 동시 출현한 빈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단어들 간의 연결 강도를 보여 준다. 다른 단어와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의미연결망 지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두 단어 간의 관계가 강한 경우에 서로 가까이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중심적 위치에 '5·18', '군', '전라도', '반대', '광주', '시민', '김대중', '무기', '북한', '폭동'이라는 단어가 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5·18'의 경우 '폭동', '사태', '내란', '무기', '반대', '광주', '김대중'과의 거리와 연결 강도가 강하다. 특히, '5·18'은 '유공자', '세월호', '특별법', '특혜' 등의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다. '전라도'의 경우, '홍어', '반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김대중'은 '반대', '북한'이라는 단어와의 연결 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일베'에서 추출한 50개의 대표 단어가 동일한 연결망에 속해 있더라도 서로 동질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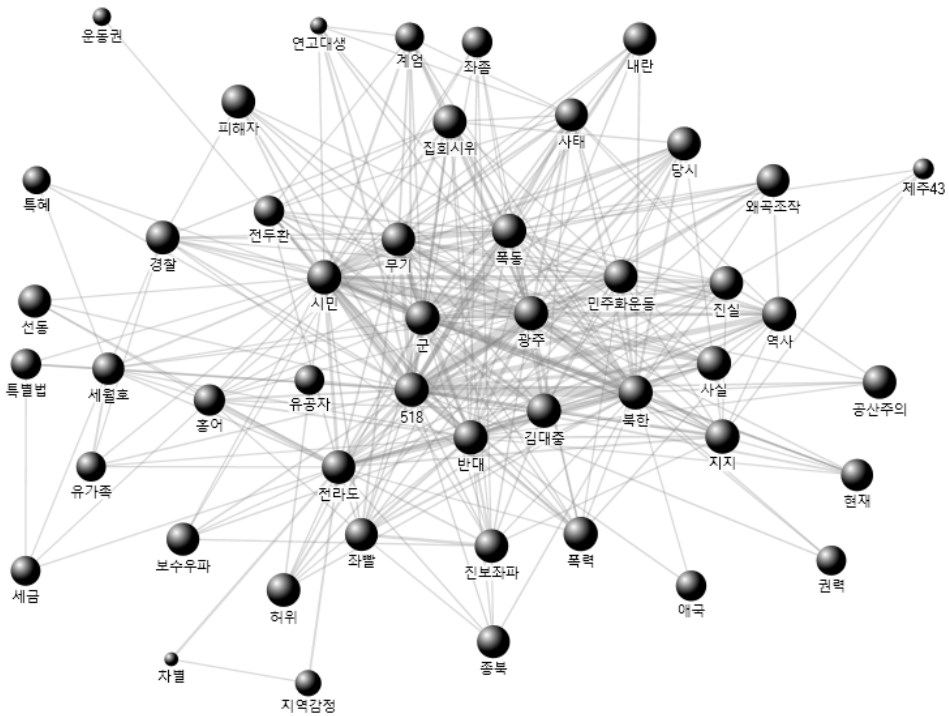


그림 1. '일베'의 5·18 언설 의미 연결망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들에 의해 하위 군집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 군집을 통해 특정 단어의 선택과 강조에 의해 형성되는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김만제·전방욱, 2012; 정서화·조현석, 2014). '일베'에서 5·18이 어떻게 프레임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게시글 안에서 동시 출현한 단어들의 빈도수와 연결 정도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위 군집을 분류했다. <그림 2>는 '일베'에서 추출된 세 개의 군집을 시각화한 의미연결망 지도다. 각각의 하위 군집을 통해서 '일베'에서 5·18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요 프레임을 읽을 수 있다.

군집1(G1)은 '5·18'과 '광주'에 대한 '일베'의 인식과 태도를 가장 잘 보여 준다. '북한'이 개입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빨', '좌썸', '종북' 세력이 주도한 '내란'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이다. 군집2(G1)는 '전라도'를 '홍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는 '일베'의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 있다. '5·18'이라는 '폭력'과 '선동'의 주인공인 '전라도'가 '특별법'을 통해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프레임이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와 '유가족',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그대로 투영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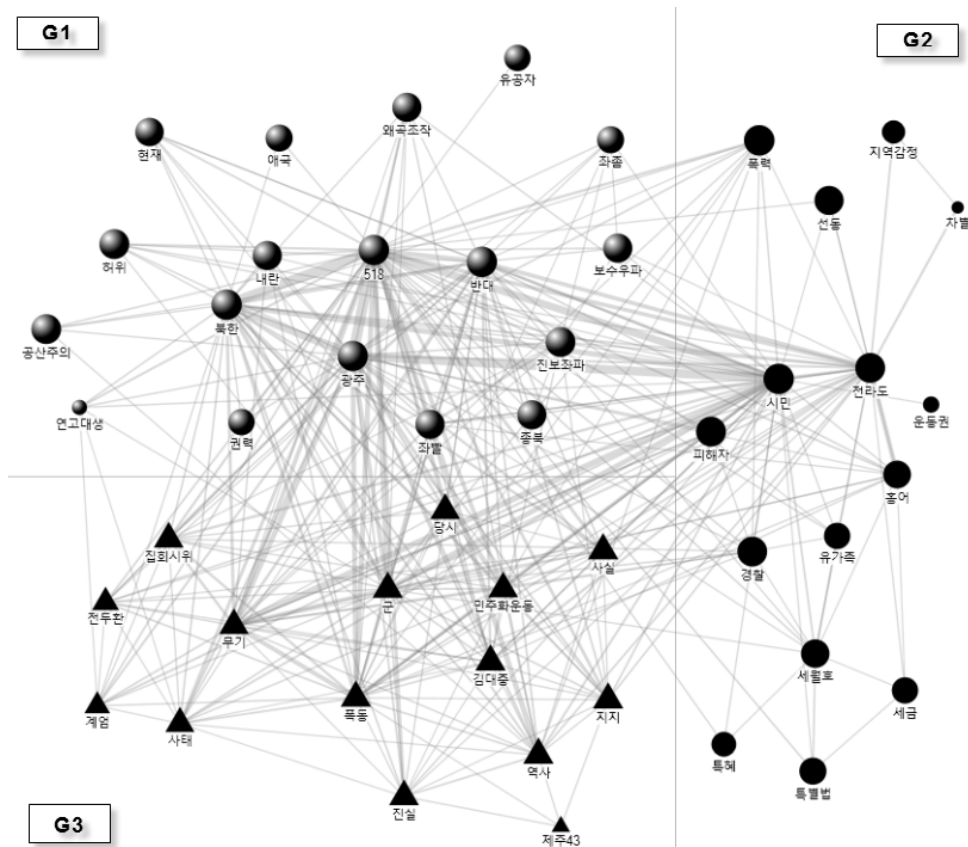


그림 2. '일베'의 5·18 언설을 구성하는 하위 군집 의미연결망

있다는 것이다. 군집3(G3)에서는 5·18에 대한 ‘일베’의 역사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즉, 5·18은 ‘무기’가 동원된 ‘집회시위’이자 ‘폭동’으로 점철된 ‘사태’이며 그 중심에 ‘김대중’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은 이러한 폭력적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명백한 ‘사실’이자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이다.

(2) ‘일베’ 내 5·18 언설의 유형

분석 대상으로 추출된 361개의 게시글들은 아주 짧은 댓글 형식을 취하거나 언론 보도 기사, 사진, 토론회 발표문, 수사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해 가며 매우 정교하게 자신의 논지를 펴는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게시글 중에 50여 개 정도의 글을 제외한 나머지 글이나 짧은 언급들은 5·18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를 담고 있다. 이 게시글들은 5·18을 재의미화하는 몇 가지 유형들로 분류할 수 있다. 앞에서 도출된 세 개의 하위 군집, 즉 주요 프레임과 5·18 언설의 대표적 유형을 중심으로 게시글들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① 군집 1: 5·18과 광주에 대한 프레임

• 유형 1: 북한이 일으킨 폭동 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대중의 내란과 폭동으로서의 5·18 ‘일베’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글들의 대표적인 논지는 5·18이 북한의 특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폭동이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김대중의 내란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특수부대나 간첩들이 직접 사건을 일으켰든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일으켰든 5·18의 북한연계설은 많은 글들에서 일관되게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제시하거나 북한연계설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보수 인사나 언론의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인용한다. 이들은 5·18의 피해자들이 민간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가해자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국군과 경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은 사북탄광 폭동 때 지령을 받고 내려온 통일혁명전사인데 그 다음으로 지령으로 광주폭동에 투입되어 자신이 직접 전차를 몰고 광주폭동의 선두에 있었다. 폭동이 진압된 후에 북에서 내려온 동기들은 복귀하였으나 자신의 잔류 명령을 받고 대남활동을 계속하다가 80년대 중반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고 한다. 당시 북에서 내려온 특작부대원들은 광주를 거점으로 폭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남조선 통일혁명을 이루려고 했는데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될 팔자였는데 천운이 따랐는지 잘 모르겠으나 초반에 폭도들을 도륙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적화로부터 구해냈다고 했다(ID:인실좃까지마, “광주 5·18 남조선 통일전쟁 참전 간첩 무기수 진실 고백”).

1. 간첩들이 실시간으로 광주 상황을 북한에 전달 2. 복귀는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3. 광주폭도들은 복귀생방송 청취하면서 폭동. 의문. 1. 광주폭동 현장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복귀에 전달하려면 몇몇의 간첩들이 있었어야 할까? 2. 광주폭도들은 왜 복귀방송을 신뢰

7) 게시글 인용에 있어 게시자의 철자 표기, 기호 사용, 띄어쓰기 등을 그대로 수정 없이 인용한다. 또 인용 분량의 조정을 위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전략, 중략, 후략 하였다. 논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의 글만 인용함을 밝힌다.

했을까? 3. 광주에 잠입한 간첩들은 어떤 경로로 광주에 침투할 수 있었을까?(ID: 0.0.0.0., “5·18 폭동 레전드”)

김대중은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사실상의 혁명지휘부를 운영하며 학생과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폭력시위를 조장함. 김대중은 5월 7일 제1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 최규하 퇴진, 내각 총사퇴, 전국적인 거국 내각 새로 구성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함. 김대중은 4월 10일, 5월 1일, 5월 10일 등 총 4회에 걸쳐 북악파크에서 문익환, 예춘호, 장기표, 심재권 등과 국가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혁명내각을 조직하여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일으킴. 정부는 김대중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김대중의 행위는 명백한 내란선동이었음. 김대중에 의해 정부가 전복되느냐 아니면 정부를 지키느냐의 급박한 위기상황이었음. 5·17은 김대중의 내란행위에 맞선 정부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음(ID: 개슬람OUT, “5·18때 김대중 석방운동이 명분없는 이유”).

요약 들어간다. 1. 일본에서 김대중 구명 운동한 쪽발이 1번 새끼는 일본 공산당 새끼다. 2. 일본에서 김대중 구명 운동한 쪽발이 2번 새끼는 일본판 민노총 위원장 새끼다. 3. 이 새끼는 조총련과 절친이고 한 새끼다. 4. 일본 빨갱이와 조총련에게 도움을 받은 김대중은 뭐다? 5. 이라고도 광주가 민주화운동이니 염전주인같은 전라도 새끼들아?(ID: 원숭이씨발, “김대중이 빨갱이인 이유를 ARABOJA”)

이와 같은 글들은 5·18의 명백한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한다. 즉, 북한의 특수부대 혹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김대중과 같은 일부 내란 인사들이 일으킨 5·18로 인해 대한민국과 희생당한 군인과 경찰, 진실을 모른 채 시민들 간에 전투를 벌여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념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 빨갱이 새끼가 벌인 무장반란이 5·18 광주폭동인데 이걸 민주화라고 교과서마다 숭상하고 보상금 주고 영웅화하고. ...저런 씹새끼가 현충원에 묻혀있다는 게 지금 나라꼴이 조선말기 꼴이라는 거라(ID: 어안이병병, “한국이라는 나라는 5·18에서부터 잘못되었음”).

북한 연계설이나 김대중 내란설을 주장하는 일베리언들은 5·18 폭동의 주범인 광주

와 전라도 사람들, 김대중과 좌익들 그리고 이의 배후인 북한이 ‘더 날뛰게’ 해 주면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 5·18의 진상을 다시 밝히기 위한 재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나서지 않는 새누리당이나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이 폭동이나 북한개입설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3당 합당으로 군부 잔당들과 손잡은 민주화 인사였던 김영삼’ 세력과 그 지지자들 때문이 아닌지 토론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ID ‘망국유민’은 5·18의 진실을 다시 밝힐 것을 주장하며, “지만원 박사가 5·18 사태는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그동안 5·18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말끔히 해소했다. 여기에 대해 가장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집단은 우리 군이다. 그동안 5·18을 왜곡한 집단에 의해 우리 군이 얼마나 흠집 나고 칼집이 나고 난도질당해 왔는가?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일시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이번에 명백하게 밝혀진 북한군 개입 사실 규명”이라며 국방부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ID ‘중북YEE’는 “거짓의 5·18 파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통일, 복지, 경제와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시대”라고 주장하고, “남북전쟁 없이 오늘의 미국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5·18 파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는 헛수고”라면서 5·18에 대한 재규명과 폭동 세력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5·18은 보수와 보수 아닌 것을 가르치는 기준인데, “5·18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 생각하고 남침땅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 일절 보수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5·18과 남침땅굴 이것 두 가지만 제시하면 이념적 성향 바로 드러난다”(ID ‘(((@@@)))’)는 식으로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흥미롭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북한이 썼다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1980년대 청년들 치고 황X영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읽지 않은 사람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책은 5·18 바이블로 통했다. 그런데 최근 황X영은 이 책을 자기가 쓰지 않고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중략) 그런데 이 책은 내용과 글맛이 북한이 쓴 두 개의 대남공작 역사책을 빼닮았고, 중요 부분을 그대로 베꼈다. 1982년에 북한이 발간한 <주체의 가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과 1985년 5월 16일 역시 북한이 발간한 <광주의 분노>라는 두 책을 모자익한 책이라는 것이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중략) 기필 부분을 제외하면 황X영의 <넘어넘어> 책은 그가 신동아에 실토한 그대로 황X영이 쓴 책도 아니고 iX의나 소X섭이 쓴 책도 아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북한에서 왔고, 북한은 5·18 당시 비정규전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특수부대를 통해 광주 일원의 각 곳에서 그리고 전남의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폭동들을 기획하고 지휘하

고 기록했다. (중략) 이 공간을 통해 국민에 알리고 싶은 것은 5·18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2010년 2월 이후 대거 발견되고 여론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ID: [^Q-**, “5·18 바이블 북한이 썼다”).

이 같은 글은 5·18이 철저하게 북한에 의해 기획된 사태임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⁸⁾

• 유형 2: 폭동으로 위치 짓기, 폭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5·18을 기억하려는 집단에 대한 공격

가끔 정치적인 이야기 하다가 광주폭동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거다. 그때 아무리 설명 해줘도 납득 못하고 5·18은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니 뭐니 이야기하는 플렉새 끼들이 종종 있는데 그 때 딱 하나 질문 하나만 하면 된다. 그 사건이 민주화운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사건의 앞뒤도 모르면서 그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 세뇌당한거다(ID: 제갈대중, “광주폭동을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새끼 아가리 닥치게 하는 법”).

5·18이 폭동이면 프랑스 혁명도 폭동이냐? 라고 비웃는 좌빨들한테 역으로 비웃어주자. 프랑스혁명은 당시에도 폭동이라고 생각한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주류 학계에서도 강하게 해석하면 폭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회의주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면서 말이다(ID: 계보린1, “5·18 폭동설 이야기하면 프랑스 혁명도 폭동이냐? 라고 되묻는 좌빨들을 퇴치해보자”).

이상하게 우리 부대에서는 5월달만 되면 전체 병사들의 외박과 휴가를 전면 통제했다. 5월달에는 5·18로 인해 예민해진 광주 시민들(특히 중장년층)이 휴가나온 병사들에게 시비나 싸움을 거는 경우가 있다. 이거 때문이었다. ㅅㅂㅋㅋ.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과거 사태의 원한을 아무 상관도 없는 지금의 공수부대 사람들에게 푼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냐? ㅋㅋ. 그게 민주화의 정신인가 싶더라. 그때부터 5·18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일베로 접어들어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ID: 후경커거쿵, “내가 5·18

8) 이에 대해 황석영은 이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황석영, 2010. 11. 22 참조). 이 논쟁은 지만원,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과 같은 보수 집단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 폭동이라고 의심하게 된 계기”).

일베리언들에게 5·18은 ‘폭동’이다. 그리고 폭동이 아닌 다른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다. 이들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정의까지 내세우며 ‘민주화운동’이라는 규정을 거부한다.

광주는 민주화운동인가?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보며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벌이는 운동’이라 되어 있다.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다면 총과 수류탄을 들고 일어나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라 보기 힘들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서 우리는 광주사태가 폭동임을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다(ID: 복괴말살, “5·18 광주에 대한 합당한 질문?”).

일베리언들은 줄기차게 ‘폭동’으로서 5·18의 진상을 재규명하자고 요구한다. 특히 2015년에는 폭동으로서의 5·18을 정확한 사실로 정립해야 할 해라고 주장한다. 폭동과 반란으로서의 5·18에 대한 왜곡된 과거와 역사를 바로 잡고 중복좌파를 소탕할 것을 주장한다. 일베리언들은 5·18을 폭동이자 시민들이 서로를 죽였던 사건이며,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위치 지어진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또 시민들은 당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폭동에 참여했으며, 북한의 놀이에 놀아난 정신없는 사람들로 취급된다. 그래서 광주와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감정의 활성화’를 통해 고립시키고 정상화시켜야 할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 홍어들은 특유의 결집력을 내세워 5·18 폭동, 광우병 파동, 다이빙벨 등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되는 거짓이라도 진실이라 우기며 타협의 댓가를 챙겨왔다. 충청도민의 결집은 강원도민, 경기도민의 결집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지역감정은 경상도 :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포함되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결국, 어떤 사안에 대해선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힘을 합쳐 강원도/경기도/충청도 연합군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국 홍어들의 비정상성은 지역감정의 다각화로 인하여 정상이 되며, 지역감정은 타파될거다(ID: 파익스, “(주)지역감정 활성화가 타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와 함께 5·18 당시 시민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증언을 인용하며 5·18이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하는 글도 있다.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어느 사람의 증언이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집에 있는데 정찰나갔던 남자가 총을 들고 와서 위협하여 강간당했다고 했다. 5·18 당시에 강간이 없었다고?? 그런 거짓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한다(ID: 원숭이목따자, “5·18 당시에 무장시위대의 강간이 없었다고?? 그런 개소리 언제까지 할텐가?”).

또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이 죽음을 당한 사실을 가두방송을 통해 알렸던 전옥주의 후회를 신고 있는 글을 소개하면서 5·18을 민주화 항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의 시선을 던지도록 한다.

당시 동사무소 직원에게 확성기와 마이크를 7만원 주고 들고 나와 길가 시체를 리어카에 싣고 자기 동생이 계엄군에 죽었다며 허위 가두방송을 시작했고 후엔 트럭을 타고 다니며 선동했으며 쪽지는 시민군과 연결된 누군가 전해줬다고 한다. 지금 시흥에 살고 있는 전옥주는 광주사태를 키운 자신의 허위 가두방송을 후회하고 있다. 김대중의 내란음모 체포에 격분한 북한과 전라도가 합세해 일으킨 5·18 폭도를 왜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가?(ID: 2군단92포대, “광주사태에 불을 지른 전옥주와 시체 리어커”)

② 군집 2: 전라도와 사회적 쟁점에 대한 프레임

• 유형 3: 5·18을 팔아 이권 챙기는 사람들, 물질적 이득에 눈 먼 사람들

좀 웃기지 않냐 ㅋㅋㅋ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 폭동이라 부르면 왜 유독 광주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거임? 이권 썰릴까봐? 한국형 진보는 사회적 기생충들이 분명하다. 열심히 일한 자들로부터 빨아먹는 데만 관심있으니 박멸 대상이다(ID: isdstdsi, “전라도 것들이 kbs 우익 기자도 한명 잡아서 신상털기 또 했네요. 요것들 쳐죽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개혁 프로그램 - 5·18을 재조명하고 관련 민주화인사들의 왜곡 및 보상금을 원위치하자(ID: 인류선도, “대한민국 개혁 프로그램”).

광주의 공무원, 교사, 경찰, 검사, 대기업,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5·18 가산점으로 된 인간들이라던데. 본인 10% 자녀 5% 가산점 먹고 들어가는데 꼴통 아니면 누구나 다 공무원은 따는 당상이지. 그 가산점 혜택을 받는 자가 당사자와 자식들까지 합치면 2만명은 될건데(ID: 수금지화목토, “광 팔도 가산점으로 공무원 된거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어수선하게 된 동기. 5·18을 민주화로 둔갑시켜준 이후부터임.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 유공자 대우해주며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각각 10%, 5%씩의 공무원 가산점을 준것이 가장 결정타. 유공자가 4천 몇 백 명이라 한다. 그들 자식들이 평균 3명이라고 하면 1만 5천명이 된다. 전남과 광주의 공무원은 이들이 독식한다고 보면 된다. 어떤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는 거의 90~100%가 이들이라 한다. 그 동네에선 경찰, 교사, 검사, 공무원, 대학생, 대기업 할 것 없이 5·18 관련자들이 쥐고 있다(ID: 수금지화목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어수선하게 된 동기”).

간추린 이상의 글들은 폭동이었던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민주화 유공자라고 대우받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나 이득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진짜 진실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생각은 4·19나 부마항쟁의 당사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반해 유독 5·18 유족들에게만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점을 비판한다.

별 다른 증거없이도 흥어들만 보면 폭동이 틀림없다고 맹신할 수 있다. 아니 장담한다. 왜 그럴까? 1. 4·19혁명이나 부마항쟁 일으킨 사람들 보상금 안 받는데 광주폭도들은 보상금 억대를 챙기고도 또 한 탕 챙기려고 함.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희생에 의의를 두지 보상에 의의를 두지 않음. 2. 광주 혹은 전라도 사람들의 성향이 이윤없이 무언가를 할 사람들이 절대 아님. 아무런 대가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다? 개소리 정권 뒤엎고 정권 없으면 한자리 해먹을 줄 알고 폭동 일으킨거지 뭐. 3. 희생이라면 아무런 댓가가 없어야 하는데 이미 엄청난 보상을 받음. 보상받아 놓고 무슨 희생? 4. 역사적으로 반역을 많이 일으켜왔다. 조선시대의 폭동이나 난은 전라도나 함경도 지역에서 많았다. 광주는? 폭동이야 시발 흥어새끼들아(ID: 광주?폭동이지, “5·18 폭동 근거가 필요없는 이유”).

이들은 5·18에 참여한 광주나 전라도 시민들이 철저히 속물적인 이득을 추구하며 일으킨 폭동이었음을 강조한다. 김대중은 이렇게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유했던 사람으로 비난받고, 보은을 입은 인사들이 권력에 있으면서 중복좌파적 정책을 일관되게 펼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역설한다. 또 일베리언들은 5·18을 폭동이라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다.

- 유형 4: 세월호 참사, 광우병 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6·25, 제주 4·3, 통진당 해산 반대, 국정원 해체 심지어 연말정산 문제까지도 5·18에 연결시키고 낙인·좌빨과 이기주의자들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건은 제2의 광주 5·18 사태. 박근혜와 정부가 국민에게 행한 테러입니다. 세월호 침몰현장으로 모여주세요. 국민 여러분이 힘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세월호 게시물 사진을 게시하며) 오오미 광주 5·18 사태 ㅋㅋㅋㅋㅋㅋ(ID: 개새끼(김대중), “자신도 모르게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인증한 좌졸 ㅋㅋㅋㅋㅋㅋ”).

국가에 의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80년 5월 광주가 매우 닮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로 승진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8반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씨는 지난 2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강연회에 왔다가 복구 운동 동 국립 5·18 묘지부터 찾았다. (중략) 이런 식으로 몰고가는 유가족도 있다. 점점 그들이 무서워진다 ㄷㄷ(ID: 강시선생, “세월호 참사와 5·18은 닮아”).

좌빨들의 개변은 정말 간단하다. 수학여행으로 사고당한 세월호 유족들이 특권층인가 시민인가 아니면 세월호 5·18 폭동 광우병 폭동 세력이 시민인가 이들은 법을 개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력이다. 오직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국민으로 감당해야 할 희생은 하나도 없이 오직 이기적인 생각으로... 정말 이런 인간들은 서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인간들이다(ID: 낙타555, “좌빨들의 개변과 이기주의의 국민들”).

5·18에 대해 조금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진실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는 교통사고라는 것엔 변함이 없다. 과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타협한 결과가 바로 광우병 사태다. 웰빙과 패션 좌파들은 지금도 이것들을 하고 있다(ID: 원승이씨발, “정치는 타협이 될 수 있지만 진실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과 극렬 중북, 라도 일부는 호남이 화합하고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 통진당 해산 반대, 국정원 해체 5·18 유족들이 주도하게 분명하다. 종편 티조와 세습A가 5·18 왜곡보도했다면서 계란 투척하고 보라색 피켓들고 지랄한 통진당과 5·18 유족들 짓거리는 북괴의 지령같아. 박근혜와 이명박을 헐뜯는 것도 통진당과 5·18 유족들이 분명하다. 전남놈들이 극좌성향이 강한 것 같고 반대세력이 강한 것 같다(ID: 달과별, “통진당 해산 반대, 국

정원 해체 5·18 유족들이 주도한게 분명하다”).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 한국에 2개의 야스쿠니가 있다. 광주 5·18 묘역과 제주 4·3 평화공원이다. (중략) 한국 역시 광주와 제주가 그렇다. 5·18 폭도와 광주 시민이 망월동 묘역에... 남로당 폭도와 제주 양민이 함께 누워있다(ID: 2군단92포대, “경천지동, 한국에도 야스쿠니가 두 개나 있다!”).

이렇듯 ‘일베’에서 5·18은 언제든지 거의 모든 현재적 사안들과 연결되어 호출되고 공격되는 대상이다. 세월호조사위원회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2의 5·18 재단’은 안 된다고 말한다. “처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부터 온갖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헛된 희망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슬퍼하라, 분노하라고 외치는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조사위원회를 5·18 재단의 폐단을 강조하며 폐기해야 한다”라거나 “5·18 광주민주화 잔치처럼 정권 탈취를 위한 거대한 음모에 새민련이 앞장서고 새누리가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글(ID: 2군단92포대), 그리고 연말정산을 “13월의 폭탄이라고 선동질하는 전라도 흥어 무리들”이라고 비난하는 글 등 모든 사회적 논쟁들을 5·18과 연결시켜 공격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또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우가 폭동에 불과한 5·18 유족들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교표를 제시하며 5·18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한다.

③ 군집3: 5·18 당시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 프레임

- 유형5: 전두환, 진압군, 계엄군임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특전여단 출신 아버지와 관련된 표창장이나 군 관련 사진들을 게시하며) 하사때 우리아빠가 도망가는 폭도들 전력질주로 달려가서 존나 많이 잡았다고 했다. 제5공수특전여단이다(ID: 네가있는마을, “우리 아빠 광주 계엄군이었던 것 인증한다”).

1. 절라도는 이유불문 개꺽기 2. 전땅크 부하 사랑 ㅅ ㅅ ㅅ ㅅ 3. 계엄군들도 보상해줘라 이기야!(ID: 수구꼴통, “아버지 친구분이 절라도를 싫어하는 이유”)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남한 내의 RO조직원들의 선전선동에 의해 전국적 데모와 폭동이

일어나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를 분쇄한 12·12는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준 구국의 혁명이다. 5·18 광주 무장반란분자들의 폭동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내란분자들은 전국에 있는 주요시설을 점령하고 더 많은 무기고를 습격했을 것이다. 5·18 무장반란군자들이 기습적으로 우리 국군에게 충질한 것을 막아낸 전두환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인 것이다(ID: 성괴와 박원순, “12·12는 김일성의 남침 도발을 막은 구국의 혁명”).

‘일베’의 많은 글들에서 폭동이자 내란으로서의 5·18을 진압한 전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두환이 오히려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한 영웅이라는 태도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또 5·18 당시 광주 현장에 있었던 개인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죄인들로 억압받았던 계엄군이나 특전부대원들이 오히려 북한과 김대중의 내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 자랑스러운 집단임을 강조한다. 이 같은 주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의 언론사나 정보기관들의 자료들을 인용하며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로서 인정해야 하며,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재평가와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 ‘일베’ 내 5·18 언설의 정보 자원 연결망과 정치적 함의

(1) 5·18 언설 형성을 위한 근거와 정보 자원 연결망

‘일베’에서 5·18을 어떻게 재의미화하고 있는지 세 가지 프레임과 다섯 가지 언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앞에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프레임과 유형의 언설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근거와 정보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베리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글들이 객관성을 담보한 특정한 근거 자료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근거 자료들을 그대로 게시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이를 ‘사실 증명’을 위한 잣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베’ 현상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글들에서는 ‘일베’ 회원이 주로 10~20대 연령층의 젊은 세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세대적 경험상 5·18 및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들은 기성세대의 정보로부터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자원들의 연결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일베’와 보수 정치 동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일베’ 내에서 5·18 언설들에 활용된 정보 자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3개 유형의 단어를 선택하여 각 단어들 간의 연결망 구조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의 단어(■)는 ‘일베’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상으로 ‘5·18’, ‘전라도’, ‘광주’,

‘김대중’ 등 4개 단어를 선정했다. <그림 1>에서 이들에 대한 ‘일베’의 태도와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특정 언설들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두 번째 유형의 단어(▲)는 공격과 비난의 주요 대상에 관한 언설을 형성하기 위해 ‘일베’가 차용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하기 위해 추출한 단어들이다. ‘사실’(137회), ‘진실’(133회), ‘주장’(46회), ‘증언’(37회), ‘표현의 자유’(24회), ‘증명’(17회) 등 6개 단어가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의 단어(●)는 ‘일베’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사실’을 통해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목 하에 공격과 비난 대상에 대한 언설을 형성하기 위해 실제 사용된 출처와 근거들이다.

<그림 3>은 ‘일베’에서 사용된 정보 자원을 시각화한 연결망 지도다. ‘지만원’, ‘조갑제’, ‘변희재’ 등의 인물, ‘인터넷’, ‘포털’, ‘블로그’, ‘SNS’, ‘기록’, ‘자료’, ‘보고서’, ‘덧글’, ‘동영상’, ‘녹취’, ‘SNS’ 등과 같은 포괄적 출처,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고라’, ‘5·18 분석 최종 보고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시스템클럽’ 등 구체적인 출처와 근거들이 등장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전남대 5·18연구소’, ‘국립현충원 인터넷 공식게시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와 글들, 공식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일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정보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3>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심 위치에 있는 ‘5·18’, ‘전라도’, ‘광주’, ‘김대중’은 ‘사실’, ‘진실’, ‘주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만원’, ‘시스템클럽’, ‘일베’, ‘네이버’, ‘블로그’, ‘동영상’, ‘책’, ‘자료’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일베’ 게시글들이 5·18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정보 자원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동아닷컴, <신동아>와 같은 국내의 보수 언론 매체, 지만원, 변희재, 조갑제와 같은 보수 인사,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활동하는 보수 단체의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보수 인사들이 출판한 보고서나 책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베’라는 노드는 일베리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 내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글들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재생산하기 위해 다시 올리고(재업) 퍼뜨리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는 ‘일베’에서 5·18 언설 형성을 위해 사용된 정보 자원의 의미 연결망이 어떤 하위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시했다. <그림 2>의 5·18 언설을 구성하는 연결망의 하위 군집과 마찬가지로 단어들 간의 연결 정도 밀도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모두 네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군집은 서로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의미와 상징성을 보여 준다.

‘일베’에서 5·18 언설 형성에 사용된 정보 자원 연결망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이 군집 1(G1)이다. 군집1의 중심에 ‘5·18’, ‘광주’, ‘김대중’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비난과 폄하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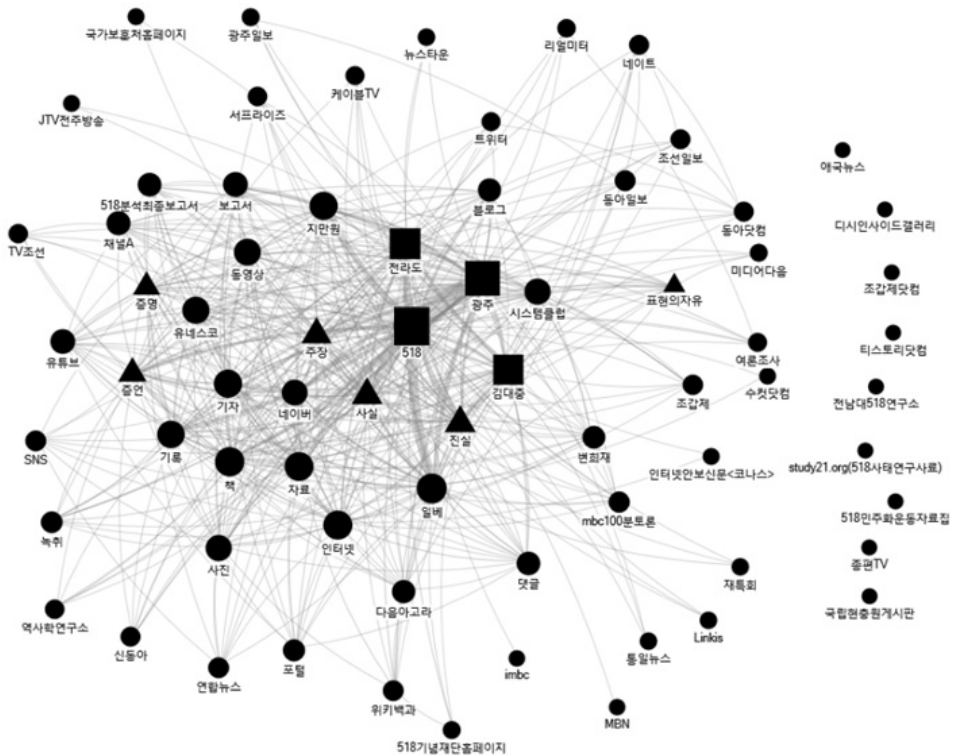


그림 3. '일베'의 5·18 언설 형성을 위한 정보 자원 연결망

- 유형1(■). 비난의 대상: '5·18', '전라도', '광주', '김대중' 등
- 유형2(▲). 언설 형성을 위한 전략: '사실', '진실', '주장', '증언', '표현의 자유', '증명' 등
- 유형3(●). 실제 사용된 출처와 근거: '일베', '지만원', '네이버', '인터넷' 등

설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된 핵심적 근거와 정보 자원이 '조선일보', '동아닷컴', '동아일보', '뉴스타운' 등의 보수언론매체, '조갑제'와 같은 보수인사이며, 그 내용들이 '트위터', 'SNS', '덧글', '다음 아고라', '네이트' 등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2(G2)에서는 '일베'가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 자원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중심에 '주장'이 놓여 있고, '증언', '증명', '녹취', '자료', '동영상', '유튜브', '기자', '보고서', 그리고 '지만원' 등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군집3(G3)은 '일베'를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인터넷안보신문 <코나스>', '수컷닷컴' 등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이 5·18 언설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근거와 정보 자원 형성은 물론 5·18 언설의 확산과 재생산을 위한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군집4(G4)는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연결되어 있다. '일베'에서 형성되는 모든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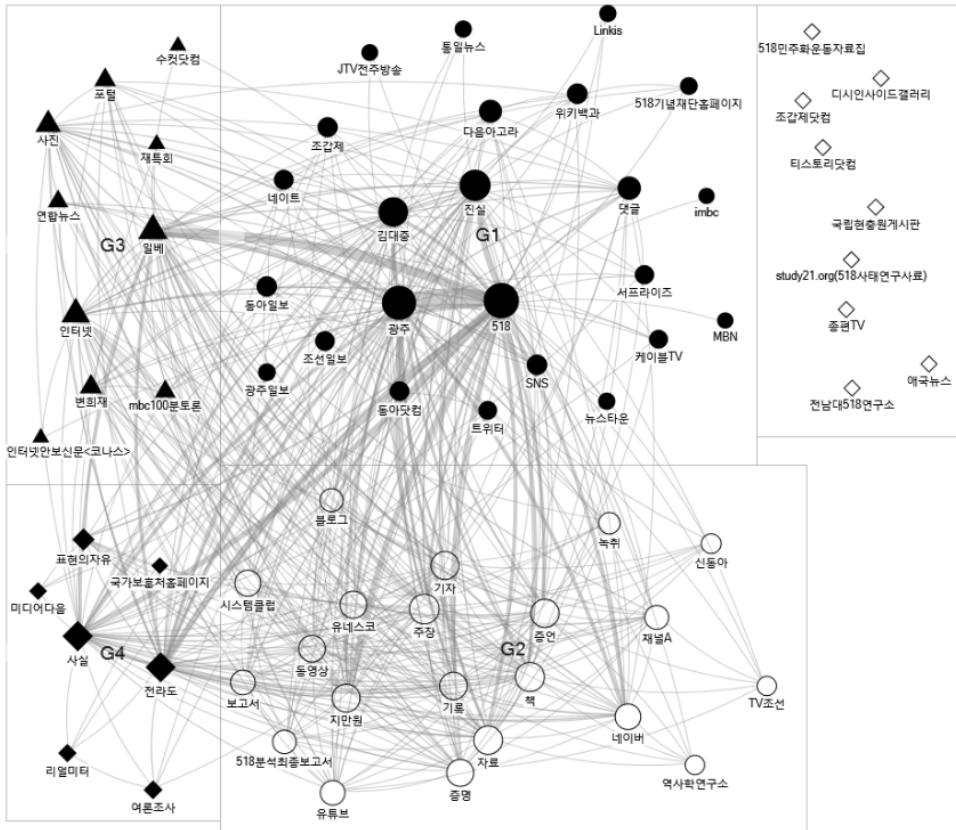


그림 4. '일베'의 5·18 언설 형성을 위한 정보 자원 연결망의 하위 군집

설은 일명 '팩트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베'와 일베리언들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확대재생산해 가기 위해 차용하는 기본 전략과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5·18 언설의 정보 자원 연결망과 역사의 내전화

'일베' 내 게시글들과 정보 자원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이 어떠한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베'에서 5·18 관련 언설들의 연결망을 이해하는데 가장 주목해야 하는 언설의 생산자는 지만원과 시스템클럽이다. 지만원이 5·18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시점은 2009년 무렵이다. 그는 <사건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와 같은 보고서나 서적을 내놓으면서 "5·18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만원의 생각을 지지하며 토론회를 통해 지만원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은 지만원의 연구가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객관적인 수사기록과 판결문, 진압군과 무장시민군 쌍방의 수기 등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주의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근 20년 동안 5·18 광주문제가 ‘민주화운동’이라는 해석이 정통화되고 화석처럼 굳어져서 각종 교과서와 근현대사 역사책에서 금과옥조처럼 무비판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에 맞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은 발상과 용기에서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온종립, 2009. 11. 5).

당시 지만원은 “1980년 5월의 학원소요 사태는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 권력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 연합을 통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음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사들이 이에 편승해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사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인 것이다(온종립, 2009. 11. 5).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서 이주천은 1995년 5·18특별법이 제정된 후부터 한국 사회의 좌경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군대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매도당했다. 법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시위가 남발되게 되었다. 김정일 추종 세력이나 체제 불온 세력을 색출해 내기가 불가능해졌다. 좌파 주사파 386 운동권의 급성장과 대중성 확보, 대학가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로 완전히 장악되었다. 김대중 좌파 정부의 등장과 햇볕 정책 및 친북 정책의 시동—낮에는 친미, 밤에는 친북 정책의 이중성을 보였다. 노무현 친북 정책의 특징—여론을 무시한 노골적이고 안하무인격의 친북 정책을 밤낮으로 실천했다. 청와대는 안희정, 이광재 등 386 주사파 운동권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국가정보원과 공안기관의 축소 및 무력화, 통일부에 햇볕 정책 추진 요원의 상주, 교육부에 좌파-관료 연대를 형성하여 좌파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빨치산 등 좌익 사범 등에 대한 복권, 보상, 대한민국의 정체성 뒤흔들기 시도, 국가보안법 무용지물화 등을 추진했으며, 워싱턴에 자진해 찾아가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시도했다”와 같은 5·18 이후의 역사를 전면적인 좌경화의 역사로 설명한다(온종립, 2009. 11. 5).

지만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박근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한 ‘제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한다”라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 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회 혼란을

책동하는 빨갱이”라고 비난했다(헤럴드경제, 2014. 4. 24). 또 2014년부터는 <5·18 역사에 대한 12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보수 집단을 중심으로 공개강연을 이끌고 있다. 일베리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글이 바로 이 보고서다. ‘일베’ 게시판에는 지만원의 대분량 보고서가 게시되어 계속해서 인용되고 일베리언들의 다른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저는 5·18 역사를 1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5·18 역사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능가하는 역사왜곡 사례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니 그보다 100배는 더 부끄럽고 악랄한 역사왜곡의 사례입니다. 5·18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보내 일으킨 폭동의 역사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북한이 10·26 이후 꾸준히 소단위로 내려 보낸 600명의 특수군으로 하여금 광주에서 천대받는 양아치 구두담이 목공 석공 철공 등 사회불만세력을 소모품으로 사용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해하여 놓고 그것을 계엄군의 소행으로 모략하여 남남전쟁을 유발하려 했던 세계 전사 상 그 유례가 없는 적진침투 게릴라 작전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지만원, <5·18 역사에 대한 12년의 연구결과 보고서>).

이 서론을 시작으로 광주가 민주화운동이 아닌 북한에 돌아간 내란이자 폭동인 이유, 5·18이 발생하기 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상황,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광주 상황, 5월 26일과 27일 새벽까지 전개된 광주 상황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서술한 후 ‘10일간 상황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결론에서 그는 자신이 2004년부터 전두환 등을 재판한 수사기록과 재판 서류 18만 쪽을 획득해서 연구했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5·18 관련 지식은 모두 가짜였다고 역설한다. 또 지금까지 국민이 알고 있는 5·18 관련 지식들은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 내용 그대로인데, 이 책 또한 북한이 작성해 황석영 이름으로 발간한 책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한다. 또 1997년 대법원의 판결⁹⁾이 매우 잘못되었으며 “북한인민공화국 판사의 입장”에서 내린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그는 그동안의 5·18 관련 판결 중에 폐기되어야 할 대상을 제시하거나 북한군 600명의 침투 근거 등을 제시했다. 참으로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며 지만원은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기획·연출·기록을 담당한 역사가 바로 5·18 역사”라고 말한다. “5·18은 북한이 일으킨 후 남한에 뒤집어씌운 것이고, 광주 봉기가 끝

9)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판결.

난 후 북한의 대남사업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고 술파티를 하였다”는 증언도 곁들였다. 또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 여러 날 동안 5·18을 기념하고 추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5년 들어 지만원은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5·18을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악령”이라고 공격한다.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얘기이며, 월 지원금과 국가고시 가산점 등 혜택을 받는 5·18 유공자는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동조하는 광주 시민들은 웃기는 사람들,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이희훈·강신우, 2015. 3. 19).

2012년에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 시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법률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박홍우는 〈5·18과 현재 사망론〉이라는 책과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일반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두 책은 ‘5·18특별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과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박홍우는 이 책의 저자가 아니며, 저자는 조문숙이다. 조문숙은 2010년 〈전두환 VS 광주혁명〉 등의 책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조문숙은 〈헌법파괴세력〉에서 “광주혁명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었고, “5·18 혁명가를 진압하는 5·18 진압자(군인)들을 공격한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5·18 특별법”은 헌법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면서 세상에 나와 ‘압제의 칼’을 휘두른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허재현, 2012. 9. 20).

이 같은 시각과 주장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극우보수 성향의 인사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KBS의 이인호 이사장은 이사장에 내정된 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5·18을 ‘광주유혈사태’라고 규정하고 “몇 백 명이 죽은 것을 몇 천 명이 죽었다는 식으로 흑색선전이 됐다”는 주장을 했다.

‘일베’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변희재 또한 지상파 방송 TV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5·18을 ‘광주사태’로 규정하면서, “5·18 광주의 북한군 개입설은 일베가 아니라 김대령 박사라는 분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 자료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주장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주장임을 강조한다. ‘일베’ 게시판에는 변희재의 이런 주장과 관련 동영상도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듯한 댓글들과 함께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5·18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가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에 대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이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로 종북 작가 황석영이 월북해서 만든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곡이며, 5·18 때 광주혁명군으로 참전했다가 탈북한 동포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이 노래가 5·18주제가로 불린다"는 주장을 펴면서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한다.

지만원을 비롯하여 5·18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보수인사들은 보수중편 TV 채널과 신문들, 각종 온라인 매체의 주목을 받는다. TV조선과 채널A와 같은 보수중편 채널은 전남도청을 접수한 시민군이 사실은 모두 북한군이었으며, 5·18은 북한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주장들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하기도 했다. <뉴데일리>나 <뉴스타운>과 같은 온라인 매체도 5·18을 내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지휘설을 주장하는 인터뷰나 기사들을 빈번하게 게재하는 매체들이다. 그리고 이들 매체에 등장하는 보수인사들과 그들의 주장은 <일베>에서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일명 '사실(fact)'로서의 근거이자 유용한 정보 자원이다.

이처럼 5·18을 민주화운동이나 시민항쟁으로 기록하는 것에 반대하며 폭동이나 내란, 공산혁명 등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일베리언들을 통해 확산되지만 이러한 시각과 주장들에 폭넓은 논리나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베' 내외부에서 반공, 반북, 반김대중·노무현, 반호남 등의 오래된 보수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극우보수 선동 정치의 주도자들이다. 이들은 5·18에 대해 직·간접적인 부정과 비판을 확산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보수 집단 내부의 이탈세력을 비난하는 잣대로 사용한다. 실제로 5·18 언설 형성을 위한 정보 자원 연결망의 핵심적인 연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등 보수 집단 내부에서 5·18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거나 5·18 묘역 참배에 참여하는 인사들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들을 퍼부으며 '변절자'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¹⁰⁾ 오승용에 따르면, 5·18에 대한 왜곡과 비난의 언설을 가장 많이 게시하는 인터넷사이트로 '시스템클럽', '올인코리아', '뉴라이트폴리젠', '뉴라이트전국연합', '코나스', '구국기도', '독립신문',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과 같은 보수단체나 인터넷 매체들이 포함된다. 또 '자유북한군인연합'과 반북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5·18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그치지 않는다(오승용, 2013).

5·18 북한연계설 혹은 북한지령설, 김대중 내란설, 자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설 등의 이념 공세를 주도하는 보수 집단의 언설 연결망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의 반격'¹¹⁾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1980년대

10) 지만원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간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11) 오승용의 2013년의 발표문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민주화 운동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로 이어지면서 확장된 진보 진영에 대한 반발과 함께 보수 세력의 반동이 호소력을 갖도록 만든 무능(오승용, 2013)과 부패, 진보 진영 내의 권력투쟁과 자리싸움 등의 부정적 양상들이 이러한 보수 세력의 반격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만원이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주천, ‘일베’ 등에 의한 5·18 비난 언설들은 보수 체제의 재건고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18 특별법 제정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의 역사 기술,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 종북좌파들의 득세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서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5·18 비난 언설은 진보진영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라는 측면에서 사고해야 한다. 그들의 공세는 이명박·박근혜정부라는 보수체제의 복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논쟁,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 끊임없는 종북 공세와 색깔론의 득세,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 강화, 김문수·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이념의 대중화, 보수 미디어 체계의 심화 등 일련의 정치 프로젝트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일베의 사상〉을 쓴 박가분(2013)은 일베를 ‘새로운 젊은 우파’라고 칭했다(136-137쪽). 그런데 이 젊은 우파들은 5·18을 폭동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의 주동자를 북한 아니면 김대중이라고 말한다. 1980년 5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앵커의 육성 또한 이 주장을 하고 있었다. 1980년 5월과 2015년 5월, 3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일베’와 1980년 당시의 언론 매체의 보도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른바 ‘젊은 우파’들이 일베리언들의 5·18 관련 언설들은 전통적인 극우보수 집단의 언설을 반복하고 재생산한다. 적어도 5·18에 관해서만큼은 ‘젊은’ 우파의 시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일베’의 적극적인 언설자들 대부분이 젊은 세대에 속한다고 가정한다면, 1980년 5월의 광주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가지지 않은 그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5·18 관련 언설들을 모아 내고 재생산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일베’에서 5·18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일베’에서 5·18은 광주, 전라도,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종북, 좌파, 세월호 유가족, 제주 4·3항쟁 등 수 많은 사건이나 대상들과 연결되며 1980년 이후의 정치적 축의 하나인 개혁진보집단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적대의 근원지가 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일베’의 5·18 관련 언설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정보나 언설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일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베리언들이 5·18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내용들이 의존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 자원들은 강경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발언과 글, 인터뷰 내용 및 이들이 출판한 보고서나 서적, 보수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5·18 관련 의혹 보도들, 보수단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혹은 블로그였다. 또 한편으로는 5·18을 폭동이자 내란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제시된다. 사진, 텍스트,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순환되고 공유된다.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과 일치하는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 주소나 출처를 대량으로 게시해 주장의 신뢰도를 높인다.

‘일베’의 5·18 이야기는 그동안 극우보수 집단에서 즐기치게 주장하던 내용들의 반복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는 방식이나 용어 사용 등이 다를 뿐이다. 이것은 ‘일베’가 ‘새로운 젊은 우파’(박가분, 2013)로서 혹은 ‘네오라이트’(한윤형, 2013)로서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데 하나의 필수적인 장식품이다. 즉, 네오라이트로서 5·18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드라이트나 뉴라이트의 지배적인 서사 체계 내부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베’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보수 집단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담론 정치와 상징 정치를 드러내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역사와 기억의 전쟁, 과거의 의미화를 둘러싼 투쟁은 이를 수행하는 인물들을 탄생시키고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일베’는 보수 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젊은 무대’ 중 하나일 것이며, 역사의 내전화는 이 ‘젊은 무대’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매개고리다.

그러나 이 연구만으로는 ‘일베’와 여러 보수 집단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즉, 일베리언들의 실체를 알 수 없으며, 또 이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보수 집단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지를 알 수 없다. 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5·18 관련 언설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언설의 연결 고리들을 밝혀내고 이면을 읽어 내는 작업 역시 부족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5·18 언설의 형성과 확산 시점, 생산자와 매개자의 분포, 정보 자원 간의 상호연결성, 내용의 일치도 등을 분석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언설들의 의미연결망과 정보 자원 연결망의 분석 또한 종합적인 지형 구성의 측면을 보여 주었을 뿐 내부로 들어가 어떠한 언설의 생산자와 매개자가 어떠한 언설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정치하게 해석해 내지 못했다.

더 나아가 이 연구의 주요 논지들이 5·18을 둘러싼 ‘일베’와 극우보수 집단의 선동정

치의 관계를 일방적인 영향이나 종속 관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적 질문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결론이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극우보수 정치집단과 일베리언의 관계를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즉, 일베리언들이 극우보수 인사들의 언설들을 단순 반복하거나 이들의 영향력 아래 놓인 수동적 수용자에 불과하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반론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결론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일베리언들은 극우보수 정치 집단들이 생산하는 극우보수적 언설들과 역사 해석들을 확산시키는 심부름꾼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일베리언들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의 과정 없이 결코 도달할 수 없고, 또 도달해서도 안 되는 결론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이 연구는 5·18 관련 언설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일베’의 5·18 관련 언설들이 극우보수 집단(정당, 정치 집단, 언론 집단, 학계 인사 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언설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를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극우보수 집단의 선동 정치나 담화 정치의 측면과 더욱 밀착시켜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양분화된 역사 서술의 대립 구도를 정치화하고 끊임없이 역사의 내전화를 시도하는 극우보수 집단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관련 언설들을 넘어선 ‘일베’의 또 다른 현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시각과 연구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역사와 진실, 원칙과 상식, 인간에 대한 예의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준거점으로 한 사회 맥락적 분석, ‘진보 vs. 보수’라는 대립 구도 프레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일베’의 정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뉴스 매체에 대한 저널리즘적 성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석 (2013).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의 부상. <문화과학>, 가을호 통권 75호, 273-302.
- 김만재·전방욱 (2012). 언어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인간배아복제 신문보도 분석. <생명윤리>, 13권 2호, 19-34.
- 김병곤 (2011).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징 - 근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여름호 통권 95호, 8-35.
- 박가분 (2013). <일베의 사상>. 서울: 5월의 봄.
- 박지영·김태호·박한우 (2013).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셀러브리티의 SNS 메시지 탐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82호, 36-74.
- 박한우 · Leydesdorff, L.(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권 5호, 1377-1387.
- 배진영 (2013. 6. 24). 지속가능한 우파생태계를 건설하자. <굿소사이어터>.
- 오승용 (2013). 5·18 왜곡의 쟁점과 대응방향. 민주당 5·18 왜곡 대책위 세미나 발표문.
- 온종림 (2009. 11. 5). 5·18 등 현대사 진상, 국가 차원 재조사를. <뉴데일리>.
- 이덕기 (2014. 9. 12). 이제 내전이다. <뉴데일리>.
- 이신철 (2013). 탈식민, 탈냉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역사문제연구>, 30호, 7-50.
- 이희훈·강신우 (2015. 3. 19). 지만원, 5·18은 대한민국 호령하는 악령. <오마이뉴스>.
- 임혁백 (2004). 한국의 뉴라이트 배경과 전망. <관훈저널>, 겨울호, 157-169.
- 전재호 (2014).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7권 1호, 165-192.
- 정서화·조현석 (2014).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변화에 관한 연구: 1984년 -2014년을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권 5호, 57-68.
- 조희연 (2013).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한국의 보수>.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 등 주최 토론회 발표문.
- 한윤형 (2013). 한국 좌우파 투쟁의 흐름 속에서 일베를 바라보다. <진보평론>, 57호, 14-32.
- 허재현 (2012. 9. 20). 박홍우 법원장, 5·18은 공산국가 혁명 책 돌렸다. <한겨레신문>.
- 황석영 (2010. 11. 22). [기고] <신동아> 의혹 제기 에 답한다. 황석영 “나의 문학 인생을 뿌리째 흔들려 하는가”. <프레시안>.
- 홍성기 (2014). 사실 왜곡, 집단 광기,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제안>(14-04), 자유경제원.
- 헤럴드경제 (2014. 4. 24). 지만원 시체장사 발언, 경찰 내사 소식에 소송할 것.
- 野間易通 (2013). <在日特權の虚構(재일특권의 허구)>. 東京: 河出書房新社.

Clauset, A., Newman, M. E., & Moore, C. (2004). Finding community structure in very large networks. *Physical Review E*, 70(6), 1-6.

투고일자: 2015. 04. 09 게재확정일자: 2015. 05. 22 최종수정일자: 2015. 05. 27.

Making a Civil War Surrounding History in Cyber Space

Focused on 5·18 Discourses in *//be Storehouse*

Soo-Young Jung

MOE-NRF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Youngjoo Lee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ficially given a historical signifier as Gwangju Democratic Movement since 1987, far-right and conservative group have restated that 5·18 is a rebellion and a riot that was committed by rebellious elements who obeyed North Korea's command or who were connected with North Korea. As those who had been responsible for the rebellion, revolt and riot were rewarded, far-right and conservatives' collective narrative that a country was born where the pro-North Korea left became dominated aroused extreme hostility towards 5·18. Far-right and conservatives involved in many different fields such as political party, university, press and media and civil group carry out incendiary discourse politics with intention to reestablish history and memory of 5·18 in their own story. Many people at online sites such as *//be Storehouse* who are considered 'young right wing' is a main route to spread the far-right groups' remarks on 5·18. *//be* is a main channel to reconstitute and reproduce the far-right conservatives' remarks and information on 5·18. *//be* is one of main area where remarks of disparagement and ridicule, hostility and hatred on 5·18 unfurl. This study collects 5·18-related remarks and stories unfolded at *//be* and examines how these remarks and stories make significance as to 5·18 and how information resources which remarks are dependent upon are connected each other. In this process, this study intends to find implications of incendiary politics that echoed of remarks on 5·18 have which at the online site *//be* and by the far-right conservatives.

KEYWORDS *//be Storehouse*, 5·18, civil war surrounding history